

■ 영화평 ■

## 영화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 (‘Everything is Illuminated’)

- 학살. 그리고 그 이후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

최아영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2천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보내면서 늘 의식처럼 외치던 말이었다. 1948년까지는 지도에도 없었던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길을 기억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조상들이 어떤 말을 썼는지,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또한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생존해왔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리고 돌아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기억하기 위해 많은 것을 감수했다. 그러나 이 영화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원제: Everything is Illuminated)>는 내년, 어쩌면 후년에도, 아니면 영영 예루살렘 땅을 밟지 못할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발을 딛고 살았던,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고향’이었던 곳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화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는 2002년에 출판된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소설 ‘모든 것이 밝혀졌다(Everything is Illuminated)’를 토대로 만들어졌다.<sup>1)</sup> 저자 조너선 사프란 포어는 1977년에 태어난 미국계 유대인으로 대학 2학년이었던 1997년에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학살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자신의 외할아버지를 나치로부터 구해준 낡은 사진 속의 여인을 찾으러 직접 우크라이나의 옛 유대인 마을을 방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집필했다. 원작소설은 2005년에 워너 브라더스사의 독립영화 프로젝션을 통해 영화로 재탄생했고,

1) 이 영화의 한국어 제목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는 주인공 알렉스가 이 여행을 마친 다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조너선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으로 영화가 전개되기에 붙여진 듯하다.

유대인 출신 배우인 리브 슈라이버가 메가폰을 잡은 가운데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 일라이저 우드가 주인공(조너선)역을 맡았다.

조너선은 가족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틀니에서부터 병뚜껑에 이르기까지- 모아서 보관하는 수집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을 떠난 외할아버지가 남긴 호박 펜던트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담긴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그를 나치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사진 속 여인 어거스틴을 찾으러 할아버지가 나고 자랐던 우크라이나의 트라킴브로드라는 곳을 향해 떠난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조너선을 맞이한 것은 죽은 가족 또는 친척의 흔적을 찾으러 오데사를 찾는 미국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여행사를 하는 또래 청년 알렉스와 스스로를 장님이라고 우기는 괴팍스러운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보다도 더 애지중지하는 미친 멧도견(?) 새미 데이비스 주니어 주니어였다.

마이클 잭슨과 힙합댄스,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가 인생 최고의 관심사인 알렉스, ‘돈이 썩어나는 유대인 놈들의 죽은 친척 찾아 다니는 일이라면 진저리가 날 정도로 지긋지긋하다’면서도 40년이 넘게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창업주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절대 가면 안 되는 위험한 나라라고 늘 들어왔던 우크라이나를 겁도 없이 혼자 불쑥 찾아온 조너선. 이들의 영 어색한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미지의 여인 어거스틴을 찾기 위한 세 사람의 여행이 시작된다.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맥도날드와 나이트클럽, 그리고 러시아정교회 사원이 공존하는 현재의 오데사를 벗어나 체르노빌을 연상시키는 방사능 오염 지역, 그리고 그 안에 버려진 폐허가 된 소련시절 지어진 아파트를 지나 2차 대전 이전에는 동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서부 우크라이나로 이동할수록 시간의 흐름도 과거 2차 대전 당시의 기억을 향해 서서히 움직인다.

영화의 전반부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세 사람이 부딪치면서 생겨나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촘촘히, 그리고 매우 유쾌하고 가벼운 톤으로 등장한다. 할아버지는 영어를 전혀 못하고, 조너선은 ‘유대인놈(쥐드)’이라는 단어 외엔 알아듣는 러시아어가 없다.

그들 사이에서 알렉스는 심하게 ‘부러진’ 영어로 둘 사이를 열심히 오간다. 영화에서 기본적인 내레이션과 대사는 영어로 이루어지지만 러시아어 대사의 비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간간히 우크라이나어도 삽입되어 있어, 이것이 등장인물간의 언어-문화적 괴리를 더욱 부각시키는 장치로 작용한다.

유대인이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조너선에게 비추어진 이 ‘무시무시한’ 나라는 타고 가던 자동차가 뒤집어졌는데도 사람들은 태연히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가이드북에 쓰여진 것처럼 어딜 가든지 이곳에서는 ‘귀한’ 말보로 담배를 톱으로 건네야 하는 곳이다. 한편 가보고 싶은 나라 1위인 미국에서 제 발로 날아온 이 독특한 녀석은 고기도 안 먹는다고 하고 틈만 나면 뭔가를 주워서 지퍼백에 넣고 들여다 본다. 알렉스도 이 희한한 녀석이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미국인이라 약간 맛이 가서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버무리면서, 자신도 생각 같아선 이 조너선이란 놈을 통째로 비닐봉지에 집어 넣고 관찰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처럼 서로를 외계인 바라보듯 했던 두 젊은이들 사이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은 바로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할아버지를 애뜻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영화의 후반부에 밝혀지게 되는 이들의 새로운 운명과도 맞닿아 있다.

어거스틴을 찾아 트라킴브로드를 향해 갈수록 알렉스 할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해진다. 차를 세우고 꿈을 꾸듯 자리를 배회하기도 하고, 손자에게 도가 지나치는 손찌검을 하기도 한다. 이제 이 영화의 서사의 중심은 조너선이 아닌 알렉스의 할아버지에게로 이동한다. 나치가 버리고 간 무기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별관으로 할아버지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이 영화의 색깔과 소리는 점점 침잠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아무도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트라킴브로드는 우여곡절 끝에 세 사람 앞에 드디어 나타난다. 매우 의외의 모습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처럼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는 오래된 집 한 채, 그리고 그 집만큼이나 긴 세월 속에서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땅 속에 묻어놓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파내어 종이상자에 넣어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어거스틴의 친언니가 바로 트라킴브로드에 살아남은 유일한

유대인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를 트라킴브로드라고 소개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트라킴브로드는 옛 폴란드 땅이었던 서부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집단거주 지역(Pale of Settlement)에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다. 트라킴브로드는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단 한 사람도 살지 않았던 전형적인 슈테틀(‘마을’이란 뜻의 동유럽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디시어)이었다. 자동차가 다닐만한 도로도 닿지 않았던 이 작은 마을에는 1942년 나치 침공 직전까지 약 5000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1942년 8월 이곳에 당도한 독일군은 1-2km 떨어진 곳에 게토를 만들어서 트라킴브로드와 인근 지역 유대인들을 소집시킨 후 이들을 모두 학살하고 마을 전체를 불태웠다. 단 33명만이 목숨을 건졌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현재는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밖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고 마을은 통째로 사라졌다.

이 오래된 집의 주인이 기억하는 얼굴은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사진 속의 조너선의 할아버지뿐만은 아니었다. 그녀가 기억해낸 또 하나의 얼굴은 글도 읽지 못하면서 늘 옆구리에 책을 끼고 다니곤 했던 동네 청년 바루흐, 바로 알렉스의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이 영화가 오래 감춰놓았던 또 하나의 이야기가 풀려진다. 알렉스의 할아버지는 1942년 독일군이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트라킴브로드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했을 때 기적적으로 시체 더미 속에서 살아났다. 그리고 육각형 별이 새겨진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버렸던 것이다.

결국 이 영화가 ‘밝히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은 단지 어거스틴의 존재뿐만이 아니었다. 홀로코스트로 희생당한 많은 유대인들의 비극이 있다면 대학살이 지나간 이후 이른바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또 하나의 비극이 있다. 이 영화는 바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영화가 유대인을 모티브로 한 다른 영화들과 달라지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에는 영화 <디파이언스>처럼 목숨을 내놓고 나치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비엘스키 같은 유대인 민족주의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오스카 쉰들러와 같이 손을 내밀어주는 의로운 이웃도 없다. 비극을 희화화되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웃고 있으면서 울게 만드는 파토스는 최대한 축소시킨다. 시간적 배경도 2차 대전 당시가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고정되어 있다. 다만 자신의 뿌리가 어디로 내려졌는지 알지 못한 채 과거의 기억은 그냥 덮여지는 것이 좋다고 여겼던 한 사람, 기억이 덮여지는 것이 두려워서 무엇이든 모아서 간직하려 했던 한 사람, 기억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기억을 돌려주는 것으로 면죄하며 살아가면서 옛 친구의 손자에게 기억을 찾아주는 것을 끝으로 인생의 마지막 줄을 쓰고 죽음을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담담히 그려질 뿐이다.

2차 대전 시기 독일의 소련 침공 당시 소련에 살고 있던 유대인은 약 500만 명으로, 당시 전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들은 대부분 소련의 남부 및 남서 국경 지대인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제정 러시아 시기 만들어진 유대인 집단 거주지역에 살고 있었다. 홀로코스트 시기 학살당한 유럽 유대인 600만 명 중 2/3가 소련과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다. 이 지역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들은 독일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인, 라트비아인, 리투아니아인 등 비러시아계 소련 구성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극심한 증오의 대상이었다. 볼셰비키 혁명의 핵심 세력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았기에 이들 유대인들이 소련의 통치를 몰고 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혁명 직후 벌어진 내전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유대인 대상 폭동과 학살이 자행되었다. 영화 속 조너선의 할머니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오히려 독일군이 들어왔을 때 상황이 더 좋아질 줄 기대했을 정도였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은 적군에게도 아군에게도 모두 '공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살 가운데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조국'은 이들을 환영해주지 않았다.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내보일 수도 없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이후 소련의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든 조국을 배신할 수 있는 시온주의자이자요, 이스라엘의 잠재적 스파이라는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렉스의 할아버지처럼 유대인으로 드러내놓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성과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러시아인으로, 우크라이나인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을 유대인처럼 키우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및 구 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 및 다른 지역 유대인들보다 타민족에 동화된 경우가 많다. 영화 속에서 조너선은 미국인으로 살지만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하는 반면, 또래 우크라이나의 청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알렉스는 조너선과 여행을 다녀온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알렉스가 본인의 뿌리를 인정하는 과정은 그리 자연스럽지는 않다. 마치 안쪽이 바깥으로 나온 뒤집어 입은 셔츠처럼. 할아버지가 유대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자, 알렉스는 불안한 듯 조너선에게 말한다. “우리 할아버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힙합과 마이클 잭슨을 흠모하는 우크라이나 청년 알렉스의 목에 주렁주렁 매달린 금 목걸이 옆에 이제 또 하나의 목걸이가 걸리게 되었다. 조너선이 돌아가면서 선물한 할아버지의 유품 다윗의 별 목걸이 말이다. 그것을 건네 받는 알렉스의 얼굴에는 뿌리를 알게 된 데서 오는 진지함과 감동이 아닌 무척 난감한 표정이 서려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영화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는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다중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의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마음껏 섞어 놓았다. 이러한 혼종(hybrid)의 향연은 개 이름<sup>2)</sup>에서부터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 펼쳐진다. 영화 곳곳에서 들리는 집시펑크 멜로디는 <고골 보르델로>라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9개국 출신 멤버로 구성된 다국적 밴드가 연주하는 것으로, 밴드의 리드보컬이자 영화에서 알렉스 역을 맡았던 유진 허츠는 우크라이나계 유대인 아버지와 집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 이름부터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작가 고골과 ‘유홍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보르델로’를 합성한, 남미, 유럽 등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진 이 밴드는 리브 슈라이버 감독이 고안한 ‘혼종 장치’에 더없이 잘 어울려 보인다. 이 밖에도 유대인을 소재로 한 기존의 영화에 어김없이 등장하곤 했던 애잔한 바이올린 선율이나 쇼팽의 유장한 피아노곡 대신 1990년대 러시아 록 그룹의 이단아였던 <레닌그라드>의 거친 보컬, 헝가리 집시 음악과 러시아의 대문호 푸쉬킨의 유명한 시에 이국적 민속 멜로디를 붙인 어색한 조합이 영화 이곳 저곳에 포진해 있다.

---

2) 알렉스의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개 ‘새미 데이비스 주니어 주니어’는 미국의 흑인 유대인(게다가 기독교로 개종까지 한!) 가수 새미 데이비스 주니어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개 이름 하나에도 4종의 정체성이 혼합되어 있다.

영화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Everything is Illuminated’)

이렇게 시종일관 상쾌한 재치와 유머로 무장한 채 홀로코스트의 기억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안고 갔던 이 영화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진다. “트라킴브로드”. 바로 이 대사는 영화 속 조너선과 알렉스의 할아버지가 마침내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대화이다. 트라킴브로드로 표상되는 공간은 잔혹한 학살과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땅이다. 불태워졌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듯 사라진 공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나그네로 낯선 땅으로 밀려와서 그 땅을 밟고 일구며 살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유년의 따사로운 놀이터가 있고, 사랑하는 연인의 반지가 묻혀진 땅이기도 하다. 바로 강바닥에 묻혀진 그 반지가 이 세 사람을 이끌어 이들의 묻혀진 기억을 과거의 빛으로 밝혀주었다. 그 빛으로 인해 알렉스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묘비명에 새겼고, 알렉스와 그의 가족은 키파를 쓰게 되었고, 조너선은 자신의 뿌리가 드리워진 공간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영화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후손인 조너선과 알렉스가 트라킴브로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 무력하게 학살당한 조상들의 죽음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해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를 외치면서도 200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진짜 고향은 과연 예루살렘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